

## 地域協力の可能性을 論議

中村 廣治(日本神戸製鋼(株)顧問)

1988年 올림픽 서울大會會場은 그보다 2年前에 열리는 아시아올림픽大會의 開催에 맞춰 이미 대부분이 完成되었다. 올림픽村의 宿舍群이 차례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4개 노선의 地下鐵 建設도 거의 끝나 部分的으로 運行을 시작하고 있다.

人口 900萬이 넘는 이 躍動하는 大都市의 언덕 위에 위치한 호텔에서 第5次 太平洋沿岸國原子力會議가 開催되었는데, 韓國動亂때 戰死한 美8軍司令部의 이름을 붙인 곳이다.

會場에 隣接하여 展示場이 마련되어 美國, 캐나다, 仏, 英, 獨, 日의 展示品이 意慾에 찬 韓國原子力界의 出品과 나란히 선보였다. 日本에서는 展示關係者를 포함해서 120名 以上이 參加했으며, 大會의 總參加者는 900名을 넘었다.

이 會議는 美國原子力學會(ANS)의 後援을 받아 約1年半의 간격으로 호놀룰루, 東京, 아카폴코, 밴쿠버에서 개최되어온 것으로 各國原子力界의 協力으로 열리지만, 內容은 日本의 原産年次大會처럼 各國의 原子力事情이나 技術테마의 總括的 論議가 行하여진다.

政府 관계의 會議가 아니기 때문에 第4回부터 中共이 參加하였지만 中華民國 臺灣도 前과 같이 繼續 參加하고 있다. 밴쿠버會議때 兩國의 出席이 약간 微妙한 느낌이 있었지만, 이번 大會에서는 지극히 圓만해서 袞袞議長으로 活躍한 臺灣電力社長 朱書麟박사가 불과 數日前 同國의 다섯번째인 馬鞍山 PWR 951MW가 商業運轉을 開始했다고 報告했을 때 滿場의 拍手갈채가 터졌었다.

韓國에서는 3基, 1,900MW가 運轉中이고, 6基 5,700MW가 建設中인데 日本의 1970年度의 原子力發電 水準에 相當하는 것이다. 이제 부터 原子力發電所의 設計·建設에 대해서 國內企業을 主契約者로 하는 것과 核燃料加工의 國産化에의 努力이 進

前되고 있었다.

世界는 大西洋時代에서 부터 太平洋時代로 옮겨지고 있다. 太平洋沿岸地域은 가장 經濟的 成長이 높고, 그만큼 가장 에너지安全供給이 要望되므로 原子力에의 期待가 크다. 그러나 運轉經驗을 쌓고 또한 原子力이 自國의 國民經濟속에 定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새로운 問題에 부딪치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會議에서는 單純한 報告나 討論뿐이었으나, 이번 會議에서는 여러 局面에 있어서 地域協力の 可能性을 논의하였다.

地域協력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異論이 없지만, 이를 具體化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太平洋沿岸國原子力委員會(PBNC)를 設置하여 教育訓練, 安全性, 基準·標準, 퍼브릭어셉턴스의 워킹그룹을 設置하여 檢討를 開始하도록 하였고, 原子爐補修部品の 攷制에 대해서 別途의 機構를 考慮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技術上의 成果보다 韓國에게 보다 意義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번 會議를 통해서 많은 外國人이 現在의 韓國을 直接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午餐會는 호텔의 劇場式 레스토랑에서 베풀어졌는데, 特別講演 外에 韓國原子力界 人士夫人과 ANS前會長夫人의 獨唱, 韓國言語學者의 한글강연 등이 있었다.

在來 韓國社會에서는 儒敎의 影響으로 夫人들은 대부분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通例인데, 이번 리셉션에는 아름다운 韓服의 夫人들이 많이 참석했다. 또한 어여쁜 소녀들로 구성된 「리틀·엔젤스」의 韓國式 발레는 參席者들을 열광시켰는데, 건강하고 젊은 世代의 밝은 모습은 觀覽者의 마음을 뜨겁게 했으며, 여기에서 세계각국인에게 보내는 평화의 염원이 깃들어 있는 것을 느꼈다.